



즉시 배포용: 2019년 7월 1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S6575/A8414**에 서명하여 주정부 계약에서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 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선도적인 법안의 개정 및 확대 추진

***Cuomo** 주지사: "다양성은 뉴욕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법제화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 많은 여성 및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주정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계약을 더욱 포괄적으로 만들도록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S.6575/A.8414**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을 5년간 재승인하여,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주정부 프로젝트에서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해당 법안의 재승인에 따라, 더욱 많은 수의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개선이 추진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선도적인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의 확대 및 확장을 통해, 우리는 경제에 우리의 가치와 다양한 인재 풀을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뉴욕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법제화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 많은 여성 및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주정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계약을 더욱 포괄적으로 만들도록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도 유망한 기업가들을 위해 장벽을 부수고, 소수자 및 여성 소유의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의 부활 및 확장은 다양성을 장려하기 위한 우리의 전반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뉴욕의 선도적인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주 전역에서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은 주정부 계약에서 더욱 많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뉴욕의 경제를 한층 폭넓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2019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재승인에 따라 프로그램은 2024년까지 연장되었으며, 더욱 많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가 참여하고 참여한 모든 기업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쉽게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인증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공식 입찰 과정 없이 정부 기관이 재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한을 200,000 달러에서 500,000 달러로 증액.
- 개인순이익(Personal Net Worth) 상한을 35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증액하여 기업 자격 조건 완화.
-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국(Division of MWBE)에 뉴욕주 전역의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 훈련, 교육 기회 등을 조직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노동력 다양화 프로그램(Workforce Diversity Program)을 설립하여 건설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노동력을 사용하도록 주정부 기관 관리 감독 의무화 등 신규 내용 추가.

상원 다수당 대표인 **Andrea Stewart-Cousi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은 이미 성과를 증명해 보였으며, 소수자와 여성이 소유한 사업체 및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서명한 법안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은 2024년까지 연장하여 계속해서 주정부의 계약 과정을 한층 폭넓게 만들고 소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상원 민주 다수당(Senate Democratic Majority)은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을 위해 더욱 평등한 운동장을 만들어 이러한 노력에 추진력을 더할 것입니다. 저는 법안을 지지한 **James Sanders Jr.** 상원의원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문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많은 뉴욕 주민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법안을 통과시켜주신 저의 동료 상원의원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 Owned Business Enterprises) 프로그램은 우리 경제를 부흥시키고 우리의 노동력이 뉴욕의 다양성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우리는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을 위해 더욱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마련하는 일에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개선 및 연장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이 문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 경제를 더욱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주신 **Bichotte** 하원의원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James Sanders J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으로 하여금 생산 능력을 늘리고 주정부 계약에의 접근성을

증대시키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커다란 진전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역사적으로 이러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체제 내로 포함시키는 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Kevin Park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 및 소수자 소유 기업의 참여를 늘리고, 기회를 증대하며 기만행위를 막는 일은 우리 경제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8년 동안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과의 계약이 약 20 퍼센트 증가한 가운데, 뉴욕주 경제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재임 기간 동안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을 선결과제로 다루어주신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Rodneyse Bichott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5-A조의 연장을 포함한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법안에 서명하여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을 한층 더 확대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추진된 개선 사항으로 인해 더욱 강력하고 투명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순이익(Personal Net Worth) 상한의 1,500만 달러로 증액,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DASNY)의 멘토십 파일럿 프로그램(Mentorship Pilot Program) 참여, 인증 기간 5년으로 연장, 주정부 및 시정부 기관의 재량 지출 상한 500,000 달러로 증액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늘어나고,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참여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포괄성 증대와 뉴욕주의 평등이라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올바른 방향의 발전입니다."

Inez Dicken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Cuomo 주지사가 법안의 주요 골자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발표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셔널 어반 리그(National Urban League)가 하원의 탄생지인 미국 할렘으로 되돌려 놓은 뉴욕주 하원에서 제가 발의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기관이 다시 설립됨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또한 지역 중간 소득(Area Median Income, AMI)의 최대 80 퍼센트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170채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계획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재즈 모빌(Jazz Mobil) 및 100 블랙맨(100 Black Men Inc.)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이며, 자금의 대부분은 125번가 개선 기금(125th Street Improvement Fund)을 통해 지원될 것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도시에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주지사께 축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 생일에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 오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신규 조항에 따라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2011년부터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계약은 13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2010년, 뉴욕주 정부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과의 계약으로 지출한 총액은 1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며,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활용도는 10 퍼센트 미만이었습니다. 2014년, Cuomo 주지사는 모든 뉴욕주 계약에서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활용도를 30 퍼센트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2017-2018 기간 동안, 뉴욕주는 활용도 28.62 퍼센트, 주정부 계약 비용 25억 달러를 달성해 이 목표에 그 어느 때보다 근접했습니다. 뉴욕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계약 참여 비율을 자랑하며 지속적으로 미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S.6575/A.8414의 연장과 확대는 두 개의 추가적 법안 서명으로 개선됩니다. 그 법안은 바로 S.6301/A.7795와 S.6418A/A8407입니다. S.6301/A.7795에 따라,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는 4년 구매 과일릿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계약 기회를 한층 늘릴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한편, S.6418A/A8407는 뉴욕주의 권한 확대에 맞추어 뉴욕시 역시 재량 구매 상한을 150,000달러에서 500,000 달러로 증액하게 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